

백제 장신구의 문양 분석

서 미 영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Patterns of Baekje Accessories

Mi-Young Suh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2. 14, 심사(수정)일: 2008. 9. 3, 게재확정일: 2008. 9. 10)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of Baekje accessories, including pattern kinds, symbolic meanings and pattern types. And also this stud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ccessory patterns and gives a chance for reflecting upon the patterns of Baekje costume. This study is qualitative research using documentary records related with the accessories of Baekje and evacuated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kinds of patterns were classified four groups, floral, animal, geometrical and other patterns. Also, the symbolic meanings of its were authority, prolificacy, longevity and protection against evil spirit. Floral pattern was expressed most frequently. Second, the types of patterns were classified two groups, individual and compound type. Both of them was variously expressed. Third, The major material was copper with gold. Most work techniques were boring and hammering. The patterns were the composition of floral or animal patterns as a main design and geometrical patterns as a section or border design. Forth,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Baekje accessory patterns were to prefer floral patterns and to express symmetrical composition of patterns, therefore the patterns of Baekje accessories showed their esthetic sense like elegance, mild, serenity, a sense of stability and the sense of balance. In conclusi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Baekje accessory patterns would be expressed on the Baekje costume.

Key words: accessory(장신구), Baekje(백제), pattern(문양)

I. 서론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 미술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그 민족의 독특한 예술과 기술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경향에서 생겨난 것이 문양이며 거기에는 다분히 민족적 특성과 고유성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양은 표현하고자 하는 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생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¹⁾ 고대부터 인간을 꾸미는데 사용해 온 장신구에는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어 왔으며 그 문양은 사용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내었다.

장신구는 한 나라의 역사 형성과정과 사회적 변화를 통해 다듬어지고 발전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민족의 조형의식과 민족의 양식은 같은 장신구라도 다양한 특징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²⁾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은 민족의식의 반영이며, 정신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인 미적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신구 문양을 통하여 그 민족의 예지(叡智)와 거기에 표현된 정서와 추구하는 미의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백제의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은 백제의 민족적 예지와 정서 및 미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장신구가 고대로부터 계급에 따른 복장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백제 지배계층에서도 장신구가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까지 출토된 백제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을 연구하는 것은 백제 의복 문양을 전혀 알 수 없는 현실과 장신구가 복식의 일부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백제 장신구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무령왕릉 출토물을 중심으로³⁾ 이루어졌거나 관식을 위주로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장신구의 형태는 물론 문양에 관하여 다루기도 하였으나 백제 장신구 전체를 대상으로 거기에 표현된 문양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제 장신구 문양을

통하여 백제 의복에 사용된 문양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복식사적으로 매우 의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백제 장신구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와 형태를 알아보고 문양의 상징성 고찰과 유형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백제 복식 문양에 대해 재고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백제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로서 국내에 소개된 기존의 문헌자료·학술연구·발굴도록 등을 분석하였고, 그로 인하여 문양 분석을 사진자료에 의존한 연구의 한계성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시기적으로 백제 전 시기(B.C.18년~660년)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적으로는 고대의 백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장신구는 몸치장을 하는데 쓰이는 도구로, 종류는 관모·과대·노리개·목걸이·귀고리·가락지·비녀·첩지와 띠·동곳·뒤꽂이·주머니 등과 장도·침통·바늘집·빗치개 등 실용성을 겸한 것도 있다.⁵⁾ 문양 분석을 위한 백제 장신구는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로, 관모와 관식·뒤꽂이·비녀·귀고리·팔찌·과대와 요패·금동(식)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금동리는 식리(飾履)로 장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장신구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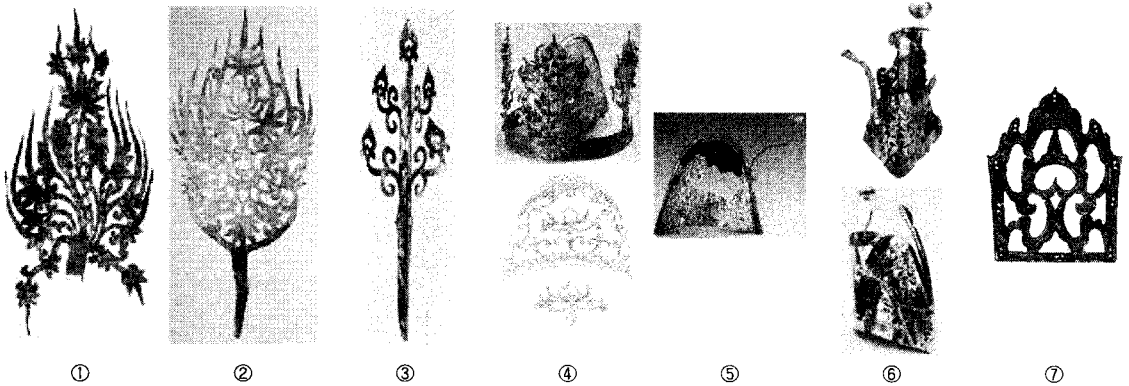
II. 백제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

1. 관모와 관식

1) 금제 관식

<그림 1>⁶⁾의 금제 관식은 무령왕과 왕비의 것으로 초화형의 화려한 문양표현은 백제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무령왕의 관식<그림 1-①>은 관모 없이 출토되어 왕이 오라관에 금화로 장식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⁷⁾과 같이 직물로 만들어진 라관(羅冠)은 부식되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관에 장식한 금화는 무령왕의 관식이 출토되어 그대로 입증되었다.

관식은 한 장의 금판에서 오려(透刻)냈고 한쪽 면은 곳곳에 금사로 연결한 원형 영락이 달려 있다.⁸⁾ 형태는 5~6잎의 반 인동당초를 불꽃이 타오르는 형



〈그림 1〉 백제 관식. 명품도감 (1986), p. 42.

상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앙의 줄기는 좌우에 여러 개의 눈이 터져 싹이 나는 형상으로 끝에는 만개한 연꽃이 하나 있고 그 중 3개의 꽃잎 끝에는 각각 인동당초문이 불꽃 형태로 붙어 있다. 중앙 줄기의 바로 양옆 줄기에는 열매와 같은 것이 달려 있고, 또 그 좌우 옆으로 불꽃과 같은 반 인동당초문이 한쪽은 4줄기, 다른 쪽은 5줄기가 있다.

왕비의 관식(그림 1-②)은 복연대좌(伏蓮臺座) 위의 현병에 꽃힌 연꽃과 인동문을 중심으로 좌우, 아래로 인동당초문이 뻗어나간 구성으로 위쪽을 향하는 인동당초문은 불꽃 형태이다. 관식은 좌우 대칭적이며 아래에 U형 곡선을 배치하여 관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왕의 관식보다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으며 보요가 달리지 않아 정적인 느낌을 준다.

2) 은제 관식

『주서』백제조⁹⁾에 의하면 1품에서 6품에 해당되는 관인들의 관에 장식했던 은화식이 있었는데, 흥덕리·복암리·척문리·육곡리·하황리·능산리 등에서 출토된 총 9점이 있다.

관식은 은판을 八형태가 되도록 기본줄기를 접어 인동당초문을 투각하였다. 능산리 36호분의 관식(그림 1-③)은 접힌 기본 줄기의 좌우에 각기 2개씩의 가지를 낸 후 각 줄기의 끝부분에 꽃봉오리를 배치하여 모두 5개의 꽃봉오리가 있다. 나주 복암리 출토 관식은 기본 줄기에 1개, 좌우에 하나씩 모두 3개의

꽃봉오리가 있다. 어떤 것은 옆가지가 없이 기본 줄기에만 꽃봉오리 1개가 있다. 이와 같이 은제 관식은 기본적 구도가 비슷하나 세부적인 꽃봉오리의 수와 형태, 줄기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고대 삼국 중 백제에서만 보이는 유일한 관식이다.

3) 금동계 관모와 관식

백제의 금동관은 토착의 수장이 착용하던 것으로 弁형 관모인 내관과 대륜(臺輪) 형태에 입식의 관식을 꽃는 외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금동관은 신촌리·입점리·수촌리 등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고, 능산리 중상층의 관식이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그림 1-④)의 내관은 반원형 금동판 2개를 맞붙이고 그 맞붙인 부분을 다시 좁은 금동판을 두드려 감싸서 고깔과 흡사한 변형 관모로 만들어 장식문양을 타출하였다. 내관의 위와 아래에는 톱니문, 중앙에는 삼엽화와 주위에 당초문을 표현하였는데, 위와 옆 들레에는 C형 당초문이 S자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에는 인동당초문이 배치되어 있다. 외관인 대륜의 테두리 상단과 관식에는 수많은 영락이 달려 있다. 관식은 앞과 좌우에 하나씩 모두 3개가 있는데 각기 중심 줄기에 좌우로 3가지씩 뻗어있는 화려한 초화문 형태이다. 가운데 줄기와 좌우 겹가지의 끝 부분에는 보주형 문양이 있고 그 위에 구슬 장식이 있다. 이 관식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다 사실적이고 5세기 후반대의 가야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 고령의 초화형 금판보다는 훨씬 복잡한 의장으로 변천된 것이며, 기원 1~2세기로 추정되는 킬리아테페 유적의 금판¹⁰과 유사성을 보인다.

익산 입점리 금동관<그림 1-⑤>의 내관은 양쪽에 물고기비늘(魚鱗) 모양으로 타출되었고 하단에는 점열문이 있다. 뒷면에는 긴축의 수발(首鉢)장식이 S형으로 부착되어 있고 끝에는 반구형 장식을 달고 있다.

공주 수촌리 고분 II지구 4호 석실분의 금동관<그림 1-⑥>은 최근에 발굴된 것으로 신촌리나 입점리의 금동관과 구조적으로는 유사하나 내관의 문양이 투각기법으로 표현되어 차이를 나타낸다. 내관은 구름형태의 문양이 있고 입점리 관과 같이 뒷면에 긴축의 수발장식이 있다. 내관의 형태나 문양은 일본 熊本縣 江田船山古墳에서 출토된 관모와 유사성을 나타낸다.¹¹ 외관은 머리에 두르는 대륜과 3갈래(三枝形)로 길게 뺀 입식을 정면에 세운 것이다. 최근 이 관모의 복제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¹² 관식의 정면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용과 봉황이 맞대고 있고 그 위로 3개의 깃털 장식이 산형으로 뻗어있다. 이는 집안현 출토 금동관, 의성 탑리 출토 금동관,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은관 등과 유사한 형태¹³로 그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촌리 II지구 4호 석실분은 5세기 초에 해당하는 고분¹⁴으로 이는 다른 지역의 금동관이나 금제관식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북사』¹⁵의 “새 깃을 꽃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깃털형 관식이 점차 초화형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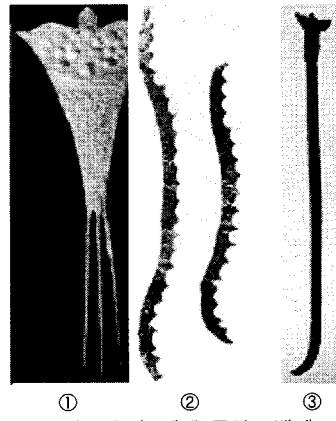
부여 능산리 금동제 관식<그림 1-⑦>은 좌우대칭을 이루며 맨 위 중앙에는 보주형 운문이 있고 그 아래 형성된 ∩자형 틀 안에는 구름과 연결된 삼각형의 형태가 투각되어 있다. 맹인재¹⁶에 의하면 아래에는 봉황이 표현되어 있는데, 삼각형 산악에서 머리로 시작하는 두 마리의 S형 봉황이 부리와 앞으로 나온 작은 날개 그리고 가슴을 서로 맞대고 있는 것 같은 형태라고 한다. 여기서 보이는 봉황은 외리출토 기와¹⁷에서 보이는 봉황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2. 두식

1) 무령왕의 두식

백제의 두식<그림 2>¹⁸으로 무령왕의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금제의 뒤꽂이<그림 2-①>는 얇은 금판의 역삼각형으로 아래는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윗부분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으로 새의 머리 부분 아래 2개의 작은 원문이 있고 양쪽 날개 아래에는 8판의 연화문이 각각 1개씩 있다. 그 아래 중간부분에는 중앙에 3줄의 세로선이 있고 좌우로 대칭되게 S자형 당초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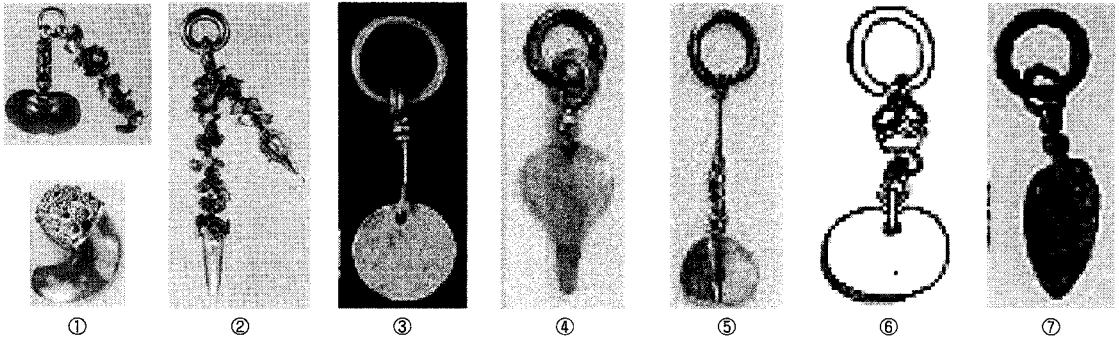
왕의 관식 근처에서 발견된 2개의 활(弓)형 금제 장식<그림 2-②>은 윗면은 톱니형이고 면의 중간에는 구멍이 균데균데 뚫려 있다. 출토 위치가 왕의 관식 근처로서 관장식이나 두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① ② ③
〈그림 2〉 백제 두식. 백제 (1999) p. 121.

2) 비녀

부여 함양리에서 출토된 금은제 비녀<그림 2-③>는 은제 긴 막대 모양의 한쪽은 원형에서 차츰 평평하게 얇아지면서 꼬부라졌고 다른 한쪽은 5엽의 활짝 핀 꽃 형태의 금제 장식이 있다. 꽃의 바깥쪽에는 꽃잎의 윤곽선을 따라 가는 금선과 금세립으로 장식하고 꽃판 가운데에는 금선을 물방울 형태로 연주문과 같이 붙였다. 이 꽃의 아래는 은비녀에 꽃기 위한 대롱부로 원형과 물방울형으로 세션을 붙이고 그 주



〈그림 3〉 백제의 귀고리. 명품도감 (1986), p. 129.

위는 세립으로 돌려 장식하여 정교하게 처리된 세부 기법이 돋보이는 장신구이다.¹⁹⁾ 여기에 표현된 꽃문양은 연화문으로 생각된다.

3. 귀고리

백제에서 출토된 이식(耳飾)을 통해 남녀 모두 귀고리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 출토된 귀고리(그림 3)²⁰⁾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고리 한 개로만 된 소환식과 기본구조가 귀에 닿는 세환의 주환부, 투작구체 또는 원통형 등의 중간식, 최하단에 매어 달리는 수하식으로 구성되는 형식이 있다.²¹⁾ 여기서는 문양이 표현된 수하식이 달린 귀고리 형식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령왕과 왕비의 귀고리

무령왕의 귀고리(그림 3-①)는 원통형의 고리에 2개의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매우 화려로운 두 종류의 수식을 매달고 있다. 2개의 수식 중 하나는 원통형 중간식으로 위아래에는 금선과 금세립으로 장식한 마개가 있고 그 사이에는 투작과 누금세공으로 장식되어 있다. 수하식은 금판 심엽형으로 그 안쪽에는 다시 작은 심엽형 축엽을 달아 변화를 보인다. 다른 쪽 중간식은 누금세공의 작은 원을 결합시켜 투작구체로 만들어 모두 5개를 연결시켜 내려뜨리고 수하식은 누금 세공된 금모를 씌운 맑은 녹색 비취 곡옥에 2개의 심엽형 영락이 매달렸다.²²⁾

왕비의 귀고리는 머리 쪽에서 2쌍, 발쪽에서 2쌍

으로 모두 4쌍이 출토되었다. 머리 쪽에서 출토된 것 중 한 쌍(그림 3-②)은 주환에 소환 하나를 연결하고 거기에 두 줄의 수식이 연결되어 있다. 짧은 중간식은 4개의 나뭇잎형 영락이 달린 세 마디로 맨 위 마디에는 금으로 만든 투작반구체 장식이 있고 그 아래에는 담녹색 유리옥에 투작 금모가 씌어져 있다. 수하식은 2개의 팬축형 금판이 사익형으로 붙여 있다. 긴 중간식은 영락으로 꾸며진 사슬모양의 연결체로 탄환 모양의 수하식이 달려 있다. 탄환형에는 누금 세공된 투작 반구체가 씌워 있다. 왕비의 다른 한 쌍은 한 줄의 수식만 있는 것으로 위의 짧은 중간식에 수하식이 달린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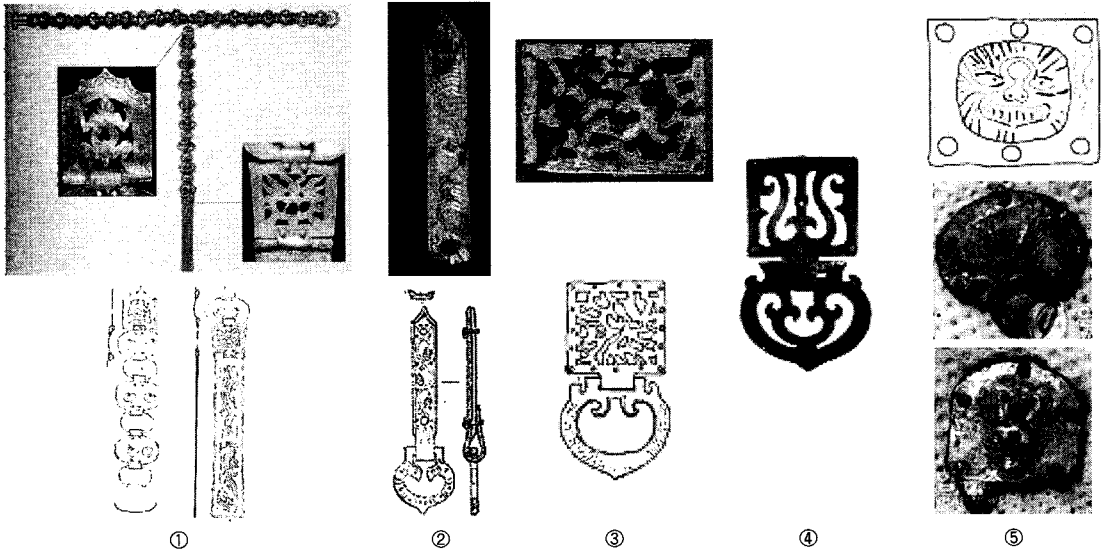
왕비의 발쪽에서 출토된 2쌍의 귀고리(그림 3-③)는 주환에 금줄을 2번 감고 밑에서 꼬아 고정시킨 다음 한쪽 끝은 구부러져 원형의 금판 하나만을 매단 매우 단순한 형태이다.

2) 기타 지역의 귀고리

귀고리의 형태는 백제의 도읍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성도읍기의 귀고리는 주성리·용원리·법천리·석촌동·신봉동·입점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귀고리 형태(그림 3-④)는 세환에 작은 고리를 걸고 중간 및 수하식을 금사나 금사슬로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간식은 구형과 원형이 있고, 수하식은 원형과 심엽형이 있는데 심엽의 끝은 길쭉하고 뾰족하다. 익산 입점리에서 출토된 귀고리(그림 3-⑤)는 다른 귀고리들이 평면적인 것에 반하여 끝장식이 사익형으로 입체적이다.



① ②
 <그림 4> 무령왕비의 팔찌. 백제조각·공예도록 (1992), p. 152.



① ② ③ ④ ⑤
 <그림 5> 과대금구. 백제 (1999), p. 123.

웅진도읍기의 귀고리<그림 3-⑥>는 송산리²³⁾와 주미리 등의 공주지역²⁴⁾에서 출토되었는데 매우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이다. 중간식에는 소환연접반구체와 유리옥이 사용되는 예가 많다. 수하식은 등근 원형도 있지만 주로 심엽형<그림 3-①>이 많은데, 한성도읍기에 비하면 크고 넓직한 형태로 변화였고 거기에 자엽이 있는 것도 있다.

사비도읍기의 귀고리는 부여 능산리·동남리·염창리·관북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그 중 능산리 귀족묘 출토품만 금제이고 나머지는 동이나 은에 금판을 덧씌운 것이다. 이 시기의 귀고리<그림 3-⑦>는 셋장식과 상하연결금구를 함께 주조하여 만든 특징이 있다. 수하식은 모두 자엽이 있는 심엽형으로 길쭉한 형과 넓직한 형이 있다.

4. 팔찌

문양을 살펴볼 수 있는 백제의 팔찌<그림 4>는²⁵⁾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팔찌 3점이 있다. 그 중 왕비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서 출토된 금제 팔찌<그림 4-①>는 톱니문 형태이다. 이와 같은 톱니문이 새겨있고 그 크기만 작은 팔찌가 왕비의 발쪽에서도 출토되었다. 톱니문 팔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으로²⁶⁾ 삼국시대에 일반적인 팔찌 형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왕비의 왼손에 끼워있던 은제 팔찌<그림 4-②>는 용 두 마리가 양각되어 있는데, 은 몸에 물고기 비늘 같은 무늬가 새겨있고 발톱은 3개이며 머리를 180° 뒤로 돌리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²⁷⁾

5. 과대와 요패

허리띠는 옷을 여미는 기능적인 역할 이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띠 위에 첨가하는 대가 있다. 특히 과대(鈔帶)는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왕족이나 귀족들이 착용했던 대이다. 과대는 문헌상으로 그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으나 금속제의 과판(飾板)을 연결한 밴드이고, 요패(腰佩)는 그 밴드에 늘어뜨려 장식한 패식(飾佩)을 말한다.²⁸⁾ 백제의 과대는 <그림 5>²⁹⁾와 같다.

1) 무령왕의 과대와 요패

무령왕 은제 과대<그림 5-①>는 교구(鉸具) 가운데를 심엽형으로 오려낸 D형 7판 꽃잎 형태의 금구에 타원형의 대소 2종류의 과판을 교차로 반복하여 연결한 것이다. 각 과판은 표면이 오목하게 되었는데 큰 것은 상하로 2개의 작은 심엽형 영락을 매달고 테두리 안쪽에 8개의 작은 원형의 영락이 달려 있으며 작은 것은 한 개의 심엽형을 매달고 테두리 안쪽에 6개의 작은 원형 영락이 달려 있다.

무령왕의 요패는 전체 도금한 은판 또는 금·은 합금판으로 만들어졌고,³⁰⁾ 구성은 과대와 같이 대소의 타원형이 교차로 연결되어 있다. 8개의 큰 과판에는 2개씩의 심엽형 영락이 달려 있고 7개의 작은 과판에는 영락이 없다. 요패 상단은 두꺼비를 투각한 금구와, 하단은 귀면을 투각한 장방형 금구와 연결되어 있다. 두꺼비문과 귀면문의 테두리에는 점열문과 파상문이 있다. 귀면문 금구 아래의 요패 맨 끝장식에는 머리를 180° 뒤로 젖히고 있는 용과 봉황이 꼬리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다.

2) 기타 지역의 과대금구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금동제 과대금구<그림 5-②>는 한성시대 과대의 형태를 시준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 과대금구는 처음에는 이형금구(異形金具)로만 알려졌으나,³¹⁾ 중국 호북성 한양현 웅가령의 동진묘 출토유물을 통하여 이것이 과대금구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³²⁾ 이 규형과대금구에는 S형의 인동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다. 웅가령 과대에 심엽형의 장식이 달린

것으로 보아 몽촌토성의 과대에도 심엽형 장식이 달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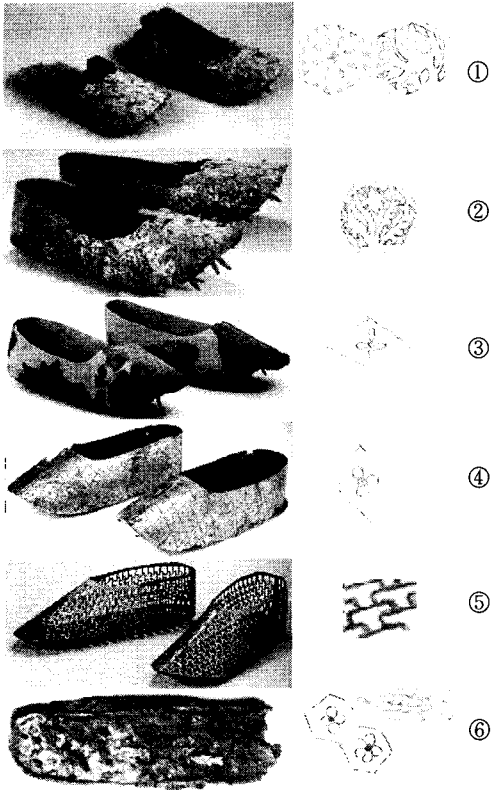
정읍 운학리 C호분에서 발견된 과대금구<그림 5-③>는 장방형의 철지은장도금 과판부이다. 문양은 용문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초문으로 변화시켜 타출 투조하고 테두리는 파상열점문이 시문되어 있다.³³⁾ 이와 같은 과대금구는 고구려의 사신총,³⁴⁾ 신라의 황남대총 남분,³⁵⁾ 일본의 奈良縣 五條猫塚, 大阪府의 七觀古墳과 穀塚古墳³⁶⁾ 등에서 출토되었다. 즉 이 과판 용문의 탈화와 추상적 덩굴무늬로의 전화는 중국·한국·일본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³⁷⁾ 고대 삼국의 공통 양식이었다. 다른 나라의 출토물에서 심엽형 수하부를 달고 있어 백제 과판에도 심엽형 수하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주 송산리 4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과판<그림 5-④>은 정방형의 과판부에 3엽 인동당초문과 2엽 반인동당초문이 투조되어 있고 심엽형의 수하부가 달린 형태이다. 신라 서봉총과 금관총³⁸⁾에서 이와 유사한 과판이 출토되었는데 금관총에서 출토된 은제 과판은 송산리 4호분에서 출토된 과판과 완전히 겹쳐질 정도로 문양이 유사하다.

송산리 3·5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과대금구<그림 5-⑤>는 입을 크게 벌린 귀면이 타출되어 있다. 귀면은 위로 치켜 올라간 눈·주먹코·얼굴 주위의 갈기와 주름살·뿔 등이 표현되어 있다. 테두리는 점열문과 파상열점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귀면문 과대금구는 공주 수촌리 1·4호분에서도 출토되었다. 과판의 형태는 1호분의 것은 타원형, 4호분의 것은 ㄱ형이다. 가야지역인 거창³⁹⁾에서도 귀면문 과대금구가 출토되어 유사성을 나타낸다.

6. 금동리

현재 남아 있는 백제의 금동제 식리(이하 금동리)는 무령왕릉과 신촌리·입점리·송산리·복암리·법천리·수촌리 등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금동리<그림 6>⁴⁰⁾는 내측판·외측판·바닥판의 3판으로 구성되어 서로 붙여 만들어졌다.



〈그림 6〉 금동리. 백제 (1999), p. 127.

1) 무령왕과 왕비의 금동리

무령왕과 왕비의 금동리는 크기·형태·제작기법·문양 등에서 유사하다. 금동리 안쪽에는 은판으로 신의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투각기법으로 장식된 금동판을 결합한 형태이다. 내측·외측·바닥의 각 판은 전면에 귀갑문이 있고 그 안에 각각 왕(그림 6-①)은 연화와 봉황, 왕비(그림 6-②)는 연화-인동당초문, 봉황이 투각되어 있다. 왕 금동리의 연화는 꽃잎이 8개이고 봉황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태이다. 왕비 금동리의 연화-인동당초의 복합문은 왕비 관식의 문양과 유사하다. 그리고 전체에 원형의 영락이 많이 달려있다.

2) 기타 지역의 금동리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리는 무령왕의 것과 구성이 일치하며 그 크기에서만 조금 작다. 나주 신촌

리 금동리(그림 6-③)와 익산 입점리 금동리(그림 6-④)는 전면에 타출 마름모문이 있고 각 마름모마다 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화문은 신촌리의 것은 십자모양을 띤 4엽 화문, 입점리의 것은 3엽 화문이다. 송산리 출토 금동리(그림 6-⑤)는 신발의 좌우 측면 부분에 T자문, 신 바닥에 격자문이 투조로 시문되어 있고 영락은 없다. 나주 북암리 3호분에서 출토된 금동리(그림 6-⑥)는 전체적으로 귀갑문이 타출되어 있고 그 안에 4엽 화문 또는 5엽 화문이 있다. 원형의 영락이 귀갑문의 결절마다 달려있고 바닥과 측면에 물고기 형태의 장식품이 달려 있다.

백제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은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Ⅲ. 백제 장신구 문양의 종류 및 상징성

백제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의 종류를 식물문·동물문·기하문·기타 문양 등으로 분류하여 각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식물문

1) 연화문

연화는 우주만물의 창조적 전개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태초의 원수(原水)였던 물결위에 떠 있는 연화는 조물주와 관련된 상징으로 여겨졌고 수면에 핀 연화의 물아래 숨어 있는 생명력에서 유래한 관념이다.⁴¹⁾ 이러한 수련문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행복을 불러오게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고,⁴²⁾ 서역을 통해 인도에 전해져 불교문화의 융성으로 화생개념(花生概念)과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이미지와 맞물려 동양에서 융성한 대표적인 문양이다. 인도의 토속신앙에 기초하여 빛과 생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연화는 불교성립이후에는 부처의 상징으로 불교를 설명하기 위한 교리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⁴³⁾ 그리하여 불교에 관련된 유적·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백제장신구에도 연화를 장식하여 불교적 영향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연화문은 가

장 신분적 과시가 강한 관식과 금동리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불교적으로 우주 만물을 탄생시키는 힘을 지배자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왕비 관식<그림 1-②>에서 보이는 생명의 근원인 성스러운 물을 담은 병(Purnaghata)에서 연화가 탄생하는 장면은 오랫동안 인도에서 애호되던 의장으로⁴⁴⁾ 중국에 수용되면서 '복을 낳고 뜻한 대로 소원을 이뤄주는 병'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⁴⁵⁾ 6세기 초에 남조에서 상당히 유행하였다.⁴⁶⁾ 백제에서 이러한 불교 문양의 성행은 6세기에 남조와 교류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2) 인동당초문

당초문은 곡선 줄기에 꽃과 잎 등을 접속시킨 덩굴 형태로 울동적인 운동성을 나타낸다. 그 기원은 팔메트계 당초인데 이집트에서 발생하여 그리스에서 완성된 것으로 인도를 거쳐 중국의 불교미술과 함께 남북조시대에 성행하였고, 그 후 한국으로 전래되었다. 이러한 당초문은 일찍부터 건축과 공예는 물론 회화와 조각에까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애용되었던 것으로 백제에서는 인동문이 이용되어 인동당초문이라고 한다. 인동당초문은 넝쿨식물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지기 때문에 장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⁴⁷⁾ 계급사회에서는 지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귀족적 문양이다.⁴⁸⁾

인동당초문은 백제 장신구의 관모와 관식, 과대금구, 금동리 등 백제 귀족들이 사용하였던 장신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문양이다. 그 중 관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계급사회의 지위를 나타내려는 의도 하에 시문된 것으로 보이며, 형태는 그리스식 반 인동당초문으로 삼국 중 가장 울동적이고 자유롭게 꾸며졌고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수목문

수목 숭배사상과 관련된 성수문은 기원전 4천 년 경 메소포타미아, 이란 지방에 원류를 두고 아시리아에서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스키타이계 문화의 전파와 함께 스키타이·알타이·시베리아·몽골 등 유목

기마민족국가들을 거쳐 중국·한국·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이러한 성수문은 농업의 근원이 되는 신의 힘으로 다산과 풍요를 축원하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의미를 갖는 성수문은 백제 장신구에도 표현되어 나주 신촌리 관식<그림 1-④>에서 볼 수 있는데 반 인동당초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백제의 관은 기원전부터 흑해지방, 시베리아지방일대에 걸쳐 널리 퍼져 있던 유목민족의 수목을 장식하던 관에서 출발하여 그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엽형은 수목문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장신구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심엽형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단지 스키타이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천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통로의 개념을 가진 수목의 일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추정할 따름이다.⁵⁰⁾ 백제의 장신구중 심엽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귀고리의 수하식<그림 3>과 과대의 수하식<그림 5>이며 영락으로도 사용되었다. 귀고리의 심엽형은 후기로 가면서 넓적하고 복엽형으로 변하였다. 옆으로 퍼진 넓적한 형태는 한결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원추형과 펜촉형 등의 수하식은 심엽형의 전형(前形)이거나 변형으로 생각된다.

나무나 풀을 숭배하는 사상은 고대의 자연숭배 개념에서 온 것으로 백제인의 수목 숭배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장신구에 나무형태의 수목문과 심엽형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2. 동물문

1) 용문

고대의 동물문양은 대개 원시 종교의 신앙적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용은 모든 실제 동물과 상상 속 동물들의 능력과 장점을 취합하여 만들어낸 동물로 생명의 신비, 자연의 힘과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과 수호의 능력을 갖춘 영험한 동물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는 용문은 지배계급 특히 왕권과 같은 권력을 표시하는 문양으로 무령왕비의 팔찌와 초기 과대금구에 표현되었고, 관식이나 요패 등에 봉황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2) 봉황문

봉황은 용과 같이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새다. 수컷을 '鳳'이라 하고, 암컷을 '凰'이라 하나 실은 자웅의 구별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봉황은 모든 조류 가운데 시조가 되며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봉황은 羽蟲의 장으로 사람이 만든 신조이고 천조이다.⁵¹⁾ 봉황은 중국에서 전국시대부터 한대에 이르는 동안 상서의 표징으로 나타나며, 사방을 상징하는 사신 가운데 남방의 신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봉황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도 받아들여져 대표적인 태양새이며 신조(神鳥)로 여겨왔다. 그러한 봉황문은 백제장신구에서 용문과 같이 왕권의 상징으로 왕이나 왕비와 같은 매우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3) 두꺼비문

두꺼비문은 옛날부터 달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왔다. 『淮南子』⁵²⁾에는 '해 속에 있는 까마귀와 달 속에 있는 두꺼비'라는 기록이 있는데, 까마귀에 대응되는 상징적 동물로서 달 속에 항상 나타난다. 까마귀가 해·양·밝음·남자 등을 상징하는데 비하여 두꺼비는 달·음·어두움·여자 등을 상징한다. 이러한 두꺼비문은 왕의 오패장식으로 사용되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봉황의 태양새로서 양에 대한 절대적 통치력뿐만 아니라 음(하늘의 달)까지 모두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4) 어문

물고기는 신화적인 측면에서 황천과 후토, 천지신이 보낸 사자를 상징하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한마리의 인술로 때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군대를 의미하거나 착용자를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한다. 동양 문화권 내에서 물고기는 신성함과 풍요, 재생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산력을 가진 물고기는 새와 함께 그 의미가 동일시되기도 한다. 도상적 의미는 신성함·갑옷·장수·변창·부귀 등을 상징한다.⁵³⁾

백제 장신구에 사용된 어문은 물고기 모양과 물고기 비늘만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어린문(魚鱗紋)이 있다. 어린문은 기하문이지만 상징적 의미는 어문과

같으므로 여기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어문이나 어린문은 금동관<그림 1-⑤>과 금동리<그림 6-⑥>에서 나타나는데, 관식의 재질이 왕과 왕비의 것이 금제인 것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지며 용이나 봉황과 같은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이 아닌 점으로 보아 그보다 낮은 지배층으로서 아래로 많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장수)가 사용하였던 문양으로 보인다.

3. 기하문

1) 귀갑문

거북의 등 껍데기를 귀갑(龜甲)이라 하는데 그 무늬 형태가 정육각형의 기하문양으로 "귀갑문"이라 한다.⁵⁴⁾ 거북은 중국 고대로부터 신성시되던 동물로서, 중국문화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갑골문자가 하늘의 뜻을 전해준다고 하여 서수(瑞獸)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여 오고 있다.⁵⁵⁾ 거북은 신성시 되어 사신도의 하나이며 거북의 생명력은 장수와 인내의 상징이다.⁵⁶⁾ 그리하여 거북의 귀갑문은 거북처럼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육각형의 귀갑문은 천계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기도 하여 2세기 경 후한대 고분의 천정벽화에 나타나는데, 함께 묘사된 문양을 통해 이 귀갑문이 밤하늘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백제 장신구 중에는 금동리<그림 6>에 구획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귀갑문의 모서리에 원형의 영락을 붙이기도 하였다.

2) 원(구)문

원은 우주 또는 태양과 달을 상징한다. 태양을 상징하는 의미로는 신령스러움·만족감·풍요 등을 가지며, 달을 상징하는 의미로는 평화·안식·고요·원만함·자유스러움 등을 지닌다.⁵⁸⁾ 백제 장신구에 표현된 원문은 관식의 영락과 귀고리<그림 3>의 중간식과 수하식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원반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원문과 유사한 개념으로 입체적 형태인 구형 장식이 귀고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 1〉 문양의 상징성

문양구분		상징적 의미
식물문	연화문	천제, 화생, 행복
	인동당초문	장수
	수목문	다산, 풍요
동물문	용문	왕권
	봉황문	태양새, 신조, 왕권
	두꺼비문	달, 음
	어문	신성함, 풍요, 장수
기하문	귀갑문	장수, 천계
	원문	우주, 해, 달, 별
	파상문	생명의 시작
	뇌문	비, 길상, 징계
기타	귀면문	벽사구복
	운문	장수, 왕권

3) 파상문

파상문은 물결 또는 파도 모양으로 ‘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 물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며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백제 시대의 농사가 하늘만 의존했다고 볼 때 파상문은 항상 풍년을 위해 농경생활에 필요한 비나 물을 기원하는 농민의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⁵⁹⁾ 이러한 의미를 갖는 파상문은 S자의 연속적 곡선 형태의 장식문양으로 백제 관모와 과대금구 등의 테두리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4) 뇌문

뇌문은 대개 번개를 상징하고 번개는 비·구름·바람과 함께 하늘 또는 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계시를 나타내며, 보통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모양은 대체로 지그재그나 之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번개는 농경사회에서 가뭄에 비를 몰고 오는 길조로 여긴다. 또 번개문은 연속적인 무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최대의 길상을 상징한다.⁶⁰⁾ 이로써 보면 지그재그 형태의 톱니 문양은 바로 번개를 표현한 문양임을 알 수 있다. 톱니문은 주로 연속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가늘고 길게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문양보다는 장신구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뇌문은 톱니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표현되었는데 격자문과 T형문이 이에 속한다. 渡辺素舟는 은(殷) 후기의 백유문정(百乳文鼎)에 표현된 격자문을 ‘각능형뇌문(角菱形雷文)의 기하학형’이라 하였고,⁶¹⁾ T형 또한 뇌문의 모티프라고 하였다.⁶²⁾ 여기에서 이 격자문과 T형문 또한 뇌문의 일종으로 농경사회에서 비와 관련된 문양임을 알 수 있다. 격자문과 같이 금동리에서 구획을 만드는 사용되었고 T형문은 송산리 금동리의 양 옆면에 전체적으로 투각되어 있다.

4. 기타 문양

1) 귀면문

귀면문은 인간생활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 등의 사악한 것들을 초자연적 존재인 ‘귀(鬼)’의 힘을 빌어 멀리 쫓아냄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하는 ‘벽사구복’의 기원에서 나온 상징적인 도안의 하나이다.⁶³⁾ 백제 장신구에서 귀면문은 공주지역에서 출토된 과대금구와 무령왕의 요패〈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귀면은 얼굴만 표현되어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려 이빨이 보이며 주위에 화염과도 같은 갈기와 뿔 등이 날카롭게 시문되었다. 이는 도깨비의 모습을 보고 불길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뿔이나 갈기, 이빨 등이 강조된 양식적 문양이라고 생각된다.

2) 운문

구름은 장수와 함께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옛 사람들은 구름이란 천신이나 신령들이 타는 것일 뿐 아니라 만물을 자라게 하는 비의 근원이라 여겼다. 또 세속을 벗어나서 상서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용이나 학과 같은 상서로운 동물과 함께 나타내는 예가 많았다. 운문은 백제 관모와 관식<그림 1-⑥, ⑦>에서 각각 구름의 흐름이 느껴지게 표현된 C자형 운기문과 운두(雲頭)가 보주형인 운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백제 장신구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은 <표 1>과 같으며 주로 왕권과 같은 권위·다산과 풍요·장수·벽사 등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각기 장신구에 시문되었다.

IV. 백제 장신구 문양의 유형 및 특성

1. 백제 장신구 문양의 유형

문양의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은 장신구를 구성하는 분리 가능한 하나의 판을 기준으로 하였고, 하나의 판에서도 구획으로 구분된 경우는 분리된 것으로 보았다.

문양의 유형은 한 가지 문양만으로 표현된 단독형(유형 I)과 두 가지 이상의 문양이 조합되어 표현된 복합형(유형 II)으로 구분하였다. 복합형은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결합된 것들로 같은 유형의 식물문+식물문, 동물문+동물문, 기하문+기하문으로 조합된 것을 유형 II-1, 서로 다른 유형의 문양이 식물문+기하문, 동물문+기하문, 동물문+기타문, 기하문+기타문과 같이 조합된 것을 유형 II-2로 구분하였다. 유형 II-2에서 식물문+동물문은 관찰되지 않았다. 세 가지 문양이 결합하여 식물문+식물문+기하문, 식물문+식물문+기타문, 식물문+동물문+기하문으로 조합된 것들은 유형 II-3으로 분류하였고, 이와 같이 유형 분류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 백제 장신구 문양의 특성

1) 소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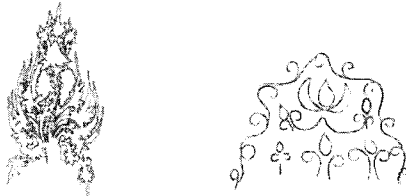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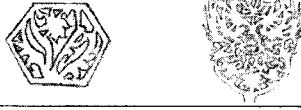

문양이 시문된 백제 장신구의 소재를 살펴보면 금·은·금동과 같은 금속 재료가 대부분이다. 금(金)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대부분의 장신구가 금으로 만들어져 장신구 제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금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은으로 제작된 장신구는 무령왕과 왕비의 장신구에서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은 고위 관리가 쓰던 관모에 수식하던 은화관식으로 제작되었다. 금동은 동에 금으로 도금하거나 금박을 입힌 것으로 무령왕 이전시대의 관모와 관식에서 볼 수 있어 왕과 같은 고위의 신분도 백제 초기에는 순금보다는 금동을 관모와 관식의 소재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동은 과대금구와 금동리 등의 백제 장신구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 문양 표현 방법의 특성

백제 장신구에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투각⁶⁴⁾·타출⁶⁵⁾·상감기법⁶⁶⁾ 등이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투각기법과 타출기법이 사용되었다. 투각기법은 얇은 금판·은판·동판을 원하는 형태로 구멍을 뚫어 문양을 새긴 것으로 백제의 모든 관식에 연화·인동당초문·용문·봉황문·조우 등의 문양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기법이다. 그 외에도 과대와 요패, 귀고리, 금동리 등에도 사용되었다. 타출 기법은 장신구의 표면을 양각으로 조금(彫金)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귀고리의 심엽형과 원형, 과대, 팔찌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었고, 기하문으로 관모나 금동리, 과대와 요패 등의 장신구 가장자리를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

백제 장신구에 사용된 상감기법은 선각과 누금세공기법⁶⁷⁾이다. 선각은 금속 면에 가느다란 선의 문양을 굵어내어 표현하는 기법으로 드물게 사용되었고, 누금세공기법은 비녀의 금장식과 귀고리 장식에 세립을 붙여 매우 섬세하게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

<표 2> 백제 장신구 문양의 유형 분류

유형		문양의 종류와 도식화			
단 독 형 I	식물문				
		연화문	인동당초문	수목문	심엽형
	동물문				
		용문	봉황문	어문	두꺼비문
	기하문				
		원형/구형	어린문	T형문	톱니문
	기타문				
		귀면문	조우	C형 운문	
복 합 형 II	1	식물문+식물문 연화+인동당초문 삼엽화+인동당초문			
		동물문+동물문 용문+봉황문			
		기하문+기하문 파상문+점문			
	2	식물문+기하문 연화, 사엽문, 오엽문+귀갑문 사엽문, 삼엽문+사격자문			
		동물문+기하문, 기타문 봉황문+귀갑문 봉황문+보주형 운문			
3	식물문+식물문+기하문, 기타문 연화+인동당초문+귀갑문 연화+인동당초문+현병				
	식물문+동물문+기하문 연화+봉황+원문				

3) 문양의 구성적 특성

백제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은 단독형과 복합형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복합형에서 식물문이 다른 식물문과 결합된 경우에는 주로 연화문과 인동당초문이 조합되었고, 동물문이 다른 동물문과 결합된 경우에는 용문과 봉황문이 조합되었다.

장신구는 그 크기의 특성이 작기 때문에 단독형 또는 복합형 문양이 장신구 전체에 주로 하나만 배치되었다. 그러나 단독형에서 작은 원형·심엽형·어문 등은 영락으로 여러 개가 입체적으로 하나의 장신구에 같이 달리기도 하였고, T형문·C형 운문 등은 반복적으로 전면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문양은 구성적으로 식물문이나 동물문이 주된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기하문은 주로 구획을 짓거나 테두리의 가장자리에 연속적으로 표현되었다. 주문양으로 표현된 식물문은 연화문과 인동당초문이며, 동물문은 용문과 봉황문이 투각기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하문 중에서 파상문은 주문양 주위의 가장자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T형문은 주문양으로 전면에 반복적으로 배치되었고 귀갑문이나 격자문으로 구획이 나누어진 식물문+기하문, 동물문+기하문 또한 구획 단위의 문양이 전면에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백제 장신구 문양의 구성은 매우 체계적인 문양 배치에 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용도에 따른 특성

백제 장신구의 용도에 따라 나타난 문양으로 관모에는 연화·봉황·어린문·운문 등의 식물문·동물문·기하문·기타문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식에는 연화·당초문·수목 등의 식물문과 용·봉황 등의 동물문, C형 운문과 같은 기타문 등이 표현되었다. 두식에는 연화·인동당초문·봉황·툽니문·원문 등이 표현되어 장신구의 수에 비하여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었다. 귀고리 문양은 심엽형·원형·구형 등이, 팔찌는 툽니문과 용문이 주로 사용되었다. 과대에는 인동당초문·삼엽문·심엽형·귀면 등의 식물문과 기타문이 나타났고 요패 문양은 용·봉황·두꺼비·귀면 등 주로 동물문이었다. 금동리는 연화·봉황·당초문·어문·3엽~5엽문·T형문 등으로 비교적 식

물문이 많이 표현되었다.

이것을 다시 문양별로 본다면 식물문은 관식·두식·귀고리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금동리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동물문은 금동제 관식·과대와 요패·금동리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하문은 귀갑문이나 사격자문 형태로 금동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귀고리에 원형이나 구형으로 사용되었으며, 과대와 요패·관모와 관식·팔찌 등에도 사용되었다. 기타문으로 운문은 관모 또는 관식에서만 보이고 귀면문은 요패 또는 과대금구에서만 나타났다.

IV. 결론

이제까지 출토된 백제 장신구를 대상으로 문양의 종류와 형태를 알아보고, 문양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상징적 의미 고찰과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 장신구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를 크게 식물문·동물문·기하문·기타 문양으로 구분하였고, 문양의 상징적 의미는 주로 권위·다산과 풍요·장수·벽사 등이었다.

둘째, 백제 장신구 문양은 단독형과 복합형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단독형은 식물문·동물문·기하문·기타문이 모두 나타났다. 복합형은 식물문+식물문이 결합된 경우 주로 연화문과 인동당초문이며, 동물문+동물문이 결합된 경우 주로 용문과 봉황문이며, 기하문+기하문이 결합된 경우는 파상문과 점문이 조합되었다.

셋째, 백제 장신구의 특성으로 소재는 금·은·금동이 사용되었고, 그 중 금동이 가장 많았다.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투각·타출·새김·누금세공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투각과 타출 기법이 사용되었다. 백제 장신구 문양은 구성적으로 식물문이나 동물문이 주된 문양으로 사용되었고 기하문은 주로 구획을 짓거나 테두리의 가장자리에 연속적으로 표현되었다. 용도에 따른 문양 표현으로 식물문은 관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동물문은 금동제 관식·과대와 요패·금동리 등에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기하문은 귀갑문 형태로 금동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기타문

의 C형 운문은 관모 또는 관식에서만 보이고 귀면문은 요패 또는 과대금구에서만 나타났다.

넷째, 백제 장신구 문양은 대부분 대칭적으로 표현되었다. 무령왕비의 관식이나 은제 관식, 금동제 관식 등의 중앙에 수직선을 그으면 좌우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게 된다. 한편 쌍을 이루는 장신구의 하나만 보았을 때에는 비대칭적인 형태이지만 두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면 비로소 대칭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무령왕의 관식과 귀고리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장신구 문양의 절묘한 대칭적 구성은 예술적 균형미를 이룸으로써 편안함과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백제 장신구 문양으로 무엇보다 초화형태의 식물문양이 선호되었다. 초화문을 표현하는 데는 연화문·인동당초문·수목문·심엽형 등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두드러진 문양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한 연화문과 인동당초문이다. 이러한 식물문의 유행은 불교 전래 이후 불교의 유행과 함께 연화문이 불교 장엄의 주요 의장으로 채택된 것은 물론, 서방 기원의 장식문양인 당초문까지 합쳐져 '식물문화'가 본격적으로 꽃피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바로 백제의 온화한 지역성과 중국 남조 불교문화의 영향이 백제가 상무적(尙武的)인 성격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여성적이고 우아한 성격을 지니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백제인의 부드럽고 여유로우며 예술 지향적인 성격이 장신구 문양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관식은 주변국에서 새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 초기에는 조우관의 형태였을 것이나 점차적으로 초화형의 관식으로 변화되어 백제인의 성격이 반영된 문양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백제 관식의 그리스 식 반 팔메트 인동당초문은 외형에 조화를 이루고 섬세함과 화려함이 고구려·신라에 뒤지지 않으며, 삼국 중 가장 율동적이고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무령왕릉 관식의 인동당초문과 유사한 문양이 고구려와 일본에도 있으나 백제보다 제작연대가 늦으며, 중국은 남북조 모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어 백제의 진취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백제는 고대 삼국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식물문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백제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은 백제 의복 문양으로 그대로 적용되어 표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문양의 표현적 특성으로 드러난 식물문이나 동물문이 주문양으로 좌우 대칭되게 배치되고 의복의 선장식 부분에는 주로 기하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백제의 직물로 된 유물의 부재로 의복 문양을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점에서 백제 의복 문양에 이러한 장신구 문양의 표현적 특성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최근에도 백제 유물의 출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하나의 예가 공주 수촌리 고분군이다. 여기에서 발굴된 금동관은 백제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5세기 초)의 관으로 백제에 존재했던 것털형 관식(조우관)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백제 유물의 출토와 더불어 끊임없는 연구에 의해 더 많은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조규화 (1976). 唐草紋樣의 系譜. 미술자료, 18. 국립중앙박물관, p. 54.
- 2) 추원교 (1989). 한국여성장신구의 형성과정과 조형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
- 3) 김원룡 (1975). 무령왕릉출토 수형패식. 백제연구, 6.
김태자 (1984). 무령왕릉 출토 금은제 장신구에 나타나는 백제의 특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세영 (1991). 무령왕릉출토 관식에 관하여. 백제문화, 21.
- 4) 맹인재 (1961). 백제의 보관식금구. 고고미술, 16.
유희경 (1991). 백제의 관식고. 복식, 17.
- 5) 김영숙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2쇄). 미술문화, pp. 319-320.
- 6) ① 무령왕 관식(국립중앙박물관 (1986). 명품도감, p. 42). ② 무령왕비 관식(명품도감, p. 43). ③ 은제관식(국립부여박물관 (1997). 국립부여박물관, p. 48). ④ 신촌리 9호분 금동관(국립중앙박물관 (1999). 백제, p. 78). 관모문양(徐志燾 (1986). 裝身具史. 延文社, p. 34). ⑤ 입점리 금동관 내관(백제, p. 113). ⑥ 수촌리 금동관과 복제품(자료검색일 2007. 1. 1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 ⑦ 능산리 중산층 출토 금동관식(국립부여박물관 (2003). 백제금동대향로, p. 101.)
- 7) 三國史記. 卷 26 古爾王 28年 春正月 “初吉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革履 坐南堂聽事”
- 8) 秦弘燮 (1976). 三國時代의 美術文化. 同和出版社, p. 268.

- 9) 周書, 列傳 41 百濟 “六品以上冠飾銀華”
- 10) 김병모 (2001).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pp. 40-41.
- 11) 국립중앙박물관 (1991). *앞의 책*, p. 113.
- 12) 자료검색일 2007. 1. 1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
- 13) 국립경주박물관 (2001). *신비한 황금의 나라(신라황금)*. 씨티 파트너, p. 239, p. 35, p. 47.
- 14) 자료검색일 2007. 1. 1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
- 15) 北史, 列傳 83 百濟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 16) 孟仁在 (1981). 百濟의 寶冠飾金具. *考古美術*, 21, pp. 174-175.
- 17) 김성구 (1999). *옛 전돌*. 대원사, p. 56.
- 18) ① 무령왕의 금제뒤꽂이(백제, p. 121), ② 무령왕의 금제두식(백제문화개발연구소 (1992). *백제조각·공예도록*, p. 213), ③ 함양리 출토 금은제 비녀(국립부여박물관, p. 58.)
- 19) 백제문화개발연구소. *위의 책*, pp. 111-113.
- 20) ① 무령왕(명품도감, p. 45), 금모곡옥(백제, p. 129), ② 무령왕비(명품도감, p. 45), ③ 무령왕비(백제, p. 123), ④ 청원 주성리(백제, p. 48), ⑤ 익산 입점리(백제, p. 136), ⑥ 송산리 6호분(伊藤秋男 (1974). 武寧王陵發見金製耳飾について. *百濟研究*, 5, p. 204), ⑦ 부여 염창리(백제, p. 170.)
- 21) 김태자 (1984). 무령왕릉 출토 금은제 장신구에 나타나는 백제의 특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4.
- 22) 국립중앙박물관 (1986). *앞의 책*, p. 191.
- 23) 伊藤秋男. *위의 논문*, p. 202.
- 24) 輕部慈恩 (1936). 公州に於ける百濟古墳. *考古學雜誌*, 26(4), p. 206.
- 25) ① 톱니문 금제 팔찌(백제조각·공예도록, p. 152), ② 용문 은제 팔찌(백제조각·공예도록, p. 153.)
- 26) 金文子 (1979). *韓日古代服飾關係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2.
- 27) 백제문화개발연구소. *앞의 책*, p.153.
- 28) 杉本正年. 문광회 譯 (1995). *동양부장사논고 고대편*, p. 344.
- 29) ① 무령왕의 과대와 요패(백제, p. 123), 요패 장식(李浩官 (1997). *韓國의 金屬工藝*. 文藝出版社, p. 129-도면20), ② 몽촌토성 출토 과대금구(서울대학교박물관 (1997).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유물도록*, p. 268), 東晉墓 출토 圭形鈔와 心葉形環(劉森森 (1994). 湖北漢陽出土的管代鎏金銅帶鈎. *考古*, 10, p. 954), ③ 정읍 출토 과대금구(백제조각·공예도록, p. 195), 신라 황남대총 남분 과대금구(三佛 김원룡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II (1987). 일지사, p. 336), ④ 송산리 4호분 출토 과대금구(백제조각·공예도록, p. 194), ⑤ 송산리 3호분과 5호분 출토 과대금구(金基雄 (1976). *百濟의古墳*. 東京: 學生社, p. 176), 수춘리 제1호와 4호분 과대금구(자료검색일 2007. 1. 17. 자료출처 <http://blog.yonhapnews.co.kr>)
- 30)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개정판). 교문사, p. 47.
- 31) 김원룡 (1986). 夢村土城의 有文金具. *동국대학교 개교 80주년 논문집*.
- 32) 劉森森 (1994). *앞의 논문*, pp. 954-956; 이도학, 박순발 (1997).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연구총서*, 5, p. 138.
- 33) 金基雄. *앞의 책*, p. 176.
- 34) 梅原末治, 藤田亮策 (1966). *朝鮮古文化綜覽* 4卷. 養德社, p. 22.
- 35)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6).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慶州史蹟管理事務所, pp. 24-25.
- 36) 町田章 (1970). 古代帶金具考. *考古學雜誌*, 56(1), pp. 38-41.
- 37) 맹인재 (1981). 고신라공예의 투각무늬에 대하여. *고고미술*, 150, pp. 144-154.
- 38) 濱田耕作, 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3, pp. 122-130.
- 39) 국립중앙박물관 (1999). *앞의 책*, p. 111.
- 40) ① 무령왕의 금동리(<http://www.museum.go.kr>), ② 무령왕비의 금동리(백제, p. 127), ③ 나주 신촌리 금동리(백제조각·공예도록, p.136), ④ 익산 입점리 금동리(백제, p. 114), ⑤ 송산리 금동리(백제, p. 134), ⑥ 나주 북암리 금동리(신비한 황금의 나라(신라황금), p. 263.)
- 41) 林良一 (1990). *東洋美術裝飾文様*. 식물문. 同朋舍出版, pp. 66-67.
- 42) 황호근. *한국문양사* (7판). 일화당, 1996, p. 123.
- 43) 조진숙 (2003).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장신구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17, p. 65.
- 44) 安藤佳香 (2003). *佛教莊嚴の研究-グプタ式唐草の東傳*. 中央公論美術出版, pp. 243-252.
- 45) 塚本善隆 (1974). *望月佛教大辭典* I卷 (9版). 世界聖典刊行協會, p. 998.
- 46) 徐信印, 魯紀亨 (1987). 陝西安康近年發見的幾處畫像塼. *考古*, 3, pp. 216-219.
- 47) 김윤진 (1979). *한국에 나타난 당초문의 종류와 변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48) 추원교 (1989). *한국여성장신구의 형성과정과 조형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94.
- 49) 김문자 (2001). 성수문에 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5(3), pp. 63-64.
- 50) 서길주 (1998). 고구려 수공예제품에 대하여. *고구려연구*, 5, p. 34.
- 51) 황호근. *앞의 책*, p. 142.
- 52) 淮南子. “日中有跋烏 而月中有蟾蜍.”
- 53) 우화정 (2003). *삼국시대 금동신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2-43.
- 54) 황호근. *앞의 책*, p. 225.
- 55) 渡邊素舟 (1975). *東洋紋様史* (2刷). 富山房, pp. 516-517.
- 56) 조진숙 (2006).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장신구의 조형성 연구. *한국공예논총*, 9(2), p. 307.
- 57) 이연재 (2006). *식리총 출토 금동식리의 문양 연구*. *강좌미술사*, 27, p. 141.

- 58) 조진숙 (2003). *앞의 논문*, p. 64.
- 59) 엽미란 (1998). 신라토우와 토기문양의 상징적 의미. *한국공예논총*, 1, p. 170.
- 60) 자료 검색일 2007. 1. 17,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
- 61) 渡辺素舟. *앞의 책*, pp. 56-57.
- 62) 渡辺素舟. *위의 책*, p. 72.
- 63) 國立公州博物館 (1990). *龜甲紋과 鬼面紋*. 국립공주박물관, p. 38.
- 64) 조각에서, 묘사할 대상의 윤곽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거나, 윤곽만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 또는 그런 기법. '뚫새김'으로 순화.
- 65) 철판 밑에 모형을 대고 두드려 그 모형과 같은 모양이 겹으로 나오게 함.
- 66) 상감은 금속판을 음각한 후 다른 금속을 음각한 곳에 끼워 넣어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
- 67) 금가루나 금실을 이용해 정교한 장식을 만드는 금속 세공기법.